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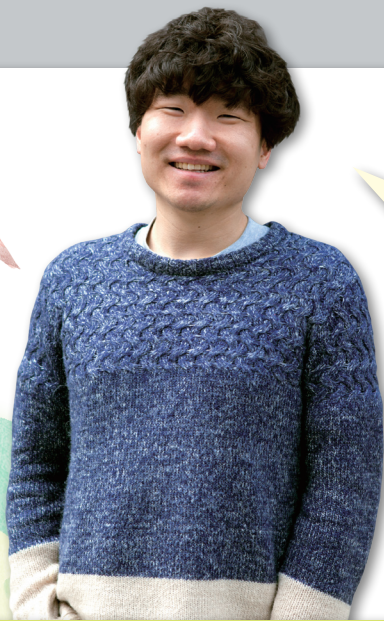
불량식품의 불편한 진실 “왜 이러는 걸까요?”

올해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대책 추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과연 불량식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거리로 나가 보았다.



박민정 (38 주부) ●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악으로 지정하고 근절하겠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마트에서 먹거리를 하나 살 때마다 매번 유통기한과 내용물을 꼼꼼히 챙기지만 그마저도 정확하게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찜찜할 때가 많았거든요. 식약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철저히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정민영 (41 회계사) ●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도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해요. 직장인들은 거의 밥을 식당에서 사먹잖아요.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식약처로 규모가 커진 만큼 더 많은 활약 기대해볼 것입니다.



오병훈 (23 학생) ●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 것 같아요.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서 불량식품의 올바른 정의와 단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줬으면 좋겠어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박가령 (27 직장인) ● 가짜 피자치즈와 같이 식품에 화학성분을 넣어 만드는 불량식품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해요. 일반인들은 맛만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짜 피자치즈 판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조사를 불시에 단속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서종혁 (51 자영업) ● 먹거리는 삶을 지탱해주는 에너지이자 행복의 요소인데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사실 비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식약처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